제주 20년 뒤에도 '인구 80만' 어려울 듯

2037년 인구 추계 78만명…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부양비 부담 가중 등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20년 후에도 제주인구는 '80만 시대'를 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2027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년부양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2037년 제주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제주인구는 2017년 63만500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70만명을 돌파하고, 20년 후인 2037년 78만1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행정시별로는 2017년 대비해 제주시는 56만6000명으로 20.7%, 서귀포시인구는 21만5000명으로 29.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연증가에 있어 2030년부터 출생아보다는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이미 2017년부터 자연감소가 이뤄졌고 제주시의 경우는 2034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중위연령은 2017년 기준 제주시 40.6세, 서귀포시 44.8세에서 20년 후인 2037년에는 제주시 50.7세, 서귀포시 55.0세로 높아진데다 그 격차도 더 벌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2017년 44만8000명에서 2030년까지 49만6000명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해 2037년에는 46만8000명으로 둔화된다. 2029~30년에 정점을 이루겠으나 이후부터는 내리막길이 예상된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7년 8만9000명에서 20년 후인 2037년에는 22만5000명으로 13만6000명 늘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고령화사회에서 10년 만인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 대상 인구는 2017년 19.9명에서 2037년 48.2명으로 2.4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유소년부양비는 이 기간에 21.7명에서 18.8명으로 2.9명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계청 자료인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의하면 제주인구는 2040년 7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50년 78만명, 2060년 72만명, 2070년 6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주민 반발 못 넘어 LNG 공급 차질…
남제주화력발전소 친환경 전환 난항

서귀포시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의 연료를 공급할 LNG 수송관 설치가 주민 반발로 지연되면서 발전소 연료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준공을 앞두고 시범운전에 나선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가 LNG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화석연료인 경유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협의 등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LNG복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할 LNG 수송관 설치는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애월항 LNG인수기지에서부터 남제주LNG복합발전소까지 이어지는 LNG 수송관 설치와 관련해 매설지역인 안덕면 동광·상창·감산·화순·광평 지역 등 5개 마을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매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감산리 등 반대 마을 주민들은 LNG 수송관 매설지역을 우회하는 방안을 시행사 측인 한국가스공사에 제안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검토 결과 곶자왈 지역 등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도 가스 배관망 매설을 위해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원회는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준공을 앞둔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는 LNG 대신 화석연료인 경유를 활용해 시범운전에 나서고 있다. LNG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경유를 활용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처럼 LNG 수송관 매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존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사용했던 경유의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에너지 대체 계획이 용두사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덕면 지역의 모 마을회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하다가도 시행사의 담당 관계자가 바뀌는 등 협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LNG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경유를 활용해 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기관의 사업인 만큼 시행사 측의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LPG 지원 조례 제정을"

비대위, 도청서 2차 집회
에너지원 균형 정책 촉구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제주도청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LPG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LPG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제주도는 LPG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NG가 제주도 전체 공급을 담당하기는 불가능하고, 제주도 역시 제주지역 57%의 LNG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수급 등의 이유로 에너지원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도시가스 본관·공급관 공사에 9억5000만원, 봉개동 내관공사에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비대위가 제주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계기가 됐다"며 "예산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함에도 담당 부서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민간 LNG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LPG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담당 부서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화목한 현장방문, 시민 찾아갑니다"

서귀포시, 화·목요일 운영
무더위쉼터 등서 의견 수렴

서귀포시가 매주 화·목요일에 민생현장, 무더위 쉼터, 희망마을 등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길에게 길을 묻다! 화목한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화목한 현장행정의 날의 '화목'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첫 글자와 시민과 행정의 화합·조화·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우선 첫 일정으로 이날 영농조합법인 (주)시트러스와 남원농협 유통센터 등 농업민생현장과 함께 남원읍 한남리와 의귀리의 무더위 쉼터를 찾았다. 이어 6일인 목요일에는 가파도와 마라도를 방문한다.

이날 현장방문에 나선 김태엽 시장은 영농현장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상황 점검과 함께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문화는 길 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만들어진다"며 "길 위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복지시설, 침수피해지역, 물놀이시설 및 현안 마을 등 총114개소를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 269건을 수렴했다.

시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등은 자체 보고회 등을 거쳐 7일 이내 건의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제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45호 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가격 열람·의견 제출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로도 가능하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제출 의견을 토대로 주택 특성·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열람·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이상민기자

농장브랜드 제작 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부터 '강소농 농장브랜드 제작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제주농업기술센터 지역 내 올해 신규 강소농 및 강소농교육 이수자 중 로고·명함·홍보물 제작 등을 희망하는 자이다. 교육은 오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5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농산물 활용 창업 및 마케팅 전략, 상표 및 지식재산 교육, 브랜드 로고·명함·농장 홍보자료 등 제작 실습, 온라인 채널 확보 및 홍보, 신규 매출을 위한 온라인 광고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전화(760-7733) 또는 제주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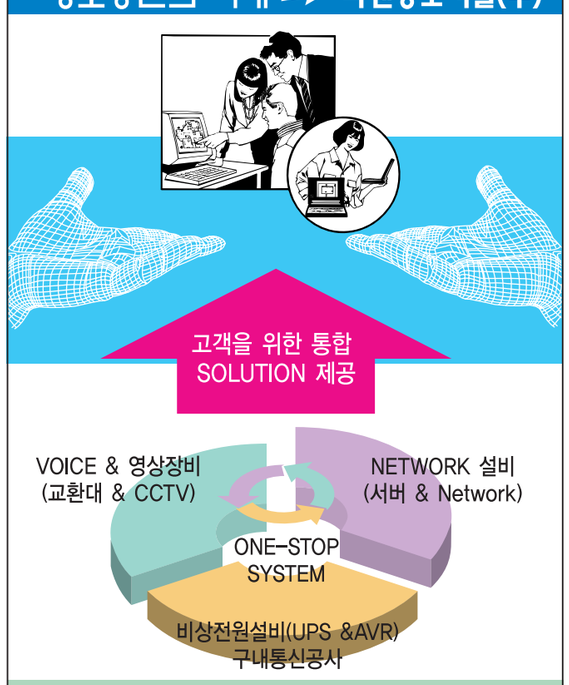
백금탁기자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